

프린트 · 염색 수출다변화 한창

중국, 사우디 · 멕시코 등으로 확대 ... 보조제 생산 70만톤 상회

중국의 프린트 · 염색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홍콩, 사우디, 멕시코, 아랍에미레이트, 톱고 등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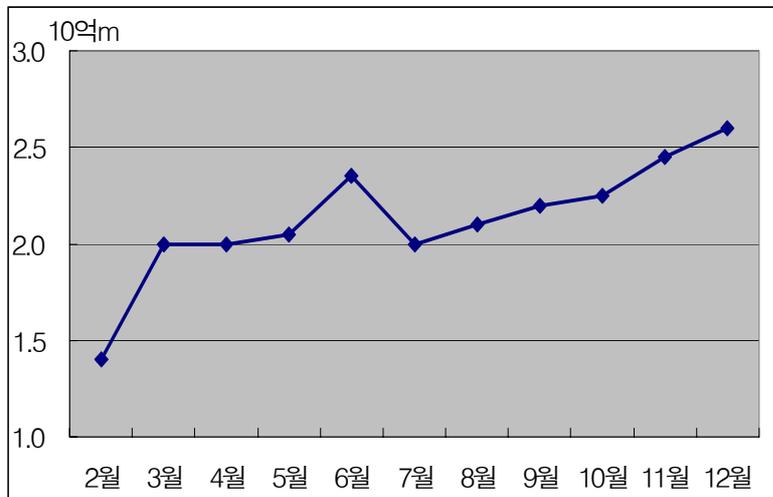
중국의 프린트 · 염색 보조제 생산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1%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생산은 7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의 단위당 프린트 · 염색 보조제 사용량은 100kg 섬유당 3.7kg으로 선진국의 15kg, 세계평균 7kg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. 세계평균 기준으로 환산시 중국의 프린트 · 염색 보조제 소비량은 1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앞으로 시장규모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중국의 프린트 · 염색 보조제 시장은 연평균 8-1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중국에는 1100개 이상의 프린트 · 염색 보조제 생산기업이 있으며 그 중 20개 기업이 연평균 5000-1만톤, 11개 기업은 1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. 대부분의 생산기업이 소규모이며 제품종류도 한정돼 있다.

합작기업 중 Zhejiang Chuanhua, Guangdong Demei, BASF Dyestuff & Chemical China, Wuxi Greenapple Chemical Industry 등은 한해 생산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기타 대부분은 생산액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.

중국 프린트 · 염색직물 생산추이(2003)



2003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35.3% 증가한 75억7800만미터, 수출액은 45.4% 증가한 58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. 평균 수출가격은 8.3% 상승한 미터당 0.78달러를 기록해 중국산 프린트 · 염색제품의 경쟁력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.

순면염색직물 수출가격은 미터당 1.10달러로 순면프린트직물 대비 39.2% 높았으며, 혼합면염색직물 수출가격은 1.08달러로 혼합면프린트직물보다 89.4%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전반적인 수출가격은 아직 낮아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.

<화학저널 2004/09/24>